



시대	시대 특징	
	정치·경제	사회·문화
제국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9세기 후반 독점 자본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, 침략적 민족주의와 결합</li> <li>• 인종주의, 사회 진화론에 기반 →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 정당화</li> <li>•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</li> <li>: 파쇼다 사건[중단 정책(영국) ⇔ 황단 정책(프랑스), 1898], 제1·2차 모로코 사건(1905·1911)</li> <li>: 독일(카메룬·토고), 이탈리아(리비아), 벨기에(토고), 포르투갈(앙골라·모잠비크), 에티오피아(독립국)</li> </ul>	
제1차 세계 대전	<p>① 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삼국동맹(독·오·이, 1882) ⇔ 삼국협상[러·프(1894) → 영·프(1904) → 영·러(1907)]</li> <li>• 3B 정책(독일, 베를린 ~ 비잔티움 ~ 바그다드) ⇔ 3C 정책(영국, 카이로 ~ 콜카타 ~ 케이프타운)</li> <li>• 범슬라브주의(러시아의 세르비아 후원) ⇔ 범게르만주의(독일의 오스트리아·헝가리 제국 후원)</li> <li>• 제1·2차 발칸 전쟁(1912·1913)</li> </ul> <p>② 발발과 전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라예보 사건(1914. 6. 28) →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→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</li> <li>•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→ 미국의 대독 선전 포고(1917. 4월)</li> <li>•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(1917. 3·11월) →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(1918. 3월)</li> <li>• 독일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 → 11월 혁명(1918) → 빌헬름 2세 폐위 → 임시 정부의 항복 선언</li> </ul>	
러시아 혁명	<p>① 피의 일요일 사건(1905. 1. 2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러일 전쟁(1904 ~ 1905)의 거듭된 패배, 민중들의 입헌 정치 요구 시위</li> <li>• 차르 군대의 진압, 니콜라이 2세의 자유주의 개혁 약속(10월 칙령) → 두마 의회 개설(1906)</li> </ul> <p>② 3월(2월) 혁명(1917) : 제1차 세계 대전 철수, 전제 정치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로보프·케렌스키 주도의 임시 공화 정부 수립, 로마노프 왕조 붕괴(니콜라이 2세 폐위)</li> </ul> <p>③ 11월(10월) 혁명(1917) : 노동자·병사 소비에트 ⇔ 임시 정부(케렌스키 내각의 우경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레닌(1870 ~ 1924) 주도의 볼셰비키 무력 혁명 → 임시 정부 타도, 소비에트 정부 수립</li> </ul> <p>④ 사회주의 경제 개혁 → 신경제 정책(1921) → 스탈린,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(1928 ~ 1932)</p>	
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	<p>① 파리 강화 회의(1919. 1월) :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, 베르사유 조약(6월), 국제 연맹 창설(1920)</p> <p>② 군축 회의 : 주력함 조유 제한, 워싱턴 회의(1921 ~ 1922), 런던 회의(1930), 제네바 회의(1932)</p> <p>③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: 로카르노 협정(1925), 웰로그·브리앙 조약(1928)</p> <p>④ 독일의 배상금 문제 : 미국의 지원, 도스안(1923) → 영안(1929) → 로잔 회의(1932)</p> <p>⑤ 대중 민주주의 발전 : 선거권의 재산 소유 제한 철폐, 여성 참정권 인정 등 보통 선거 실시</p> <p>⑥ 대공황 발생(1929)과 각국의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뉴딜 정책과 달러 블록(美), 파운드 블록과 맥도널드 내각(英), 인민전선 내각·프랑 블록(佛)</li> <li>• 파시즘(무솔리니), 나치즘(히틀러, 아리아인 우월주의),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 대두</li> </ul>	
제2차 세계 대전	<p>① 에스파냐 내전(1936 ~ 1939) : 독일·이탈리아의 지원</p> <p>②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(1938. 3) → 수데텐 지방 요구(1938. 9) → 뮌헨 회담의 승인 → 체코슬로바키아 병합(1939. 3) → 폴란드의 회랑 요구 → 영·프의 거절 → 독·소 불가침 조약(1939. 8)</p> <p>③ 독일의 폴란드 침공(1939. 9. 1) →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→ 영국·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</p> <p>④ 대서양 헌장 발표(처칠 ~ 루스벨트, 1941. 8월), 일본의 진주만 기습(1941. 12월)</p>	
전후 세계의 발전	<p>① 국제 연합 창설(1945. 10. 24) : UN군의 무력 제재 가능</p> <p>② 냉전 체제 전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련의 팽창으로 인한 동유럽의 공산화, 그리스의 공산 반란, 트루먼 독트린 발표(1947)</li> <li>• 마셜 계획(1947)·북대서양 조약 기구(1949) ⇔ 코메콘(1949)·바르샤바 조약 기구(1955)</li> <li>• 베를린 봉쇄(1948), 베를린 장벽(1961), 쿠바 미사일 사태(1962), 베트남 전쟁(1964 ~ 1975)</li> </ul> <p>③ 제3 세계 대두[콜롬보(1954)·반둥(1955) 회의, 비동맹 노선], 화해·데탕트 시대[닉슨 독트린(1969)]</p>	